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24일

CUOMO 주지사, 뉴욕주 최초의 포도주, 맥주, 주정 회담에서 새로운 관광 캠페인 및 규제 개혁 발표

주지사의 조치로 이 업계의 비즈니스 비용은 감소하고 경제 활동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최초의 포도주, 맥주, 주정 회담에서 뉴욕주에서 생산된 포도주, 맥주, 과실주 및 주정의 판매와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과 음료 생산업체의 비즈니스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일련의 규제 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포도주, 맥주, 주정 회담에는 수십명의 맥주, 포도주, 과실주, 주정 생산업자뿐만 아니라 농민, 업계 간부 및 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뉴욕주 공무원 및 주지사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맥주 및 포도주 업계가 직면한 특정 의회 및 규제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맥주, 포도주, 주정 생산 및 관광의 선도적 허브로서의 뉴욕주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주정부 노력의 새로운 방법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 22개월 동안 본인의 행정부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장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욕주의 비즈니스 문을 열고 우리 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활기찬 맥주, 포도주, 과실주, 주정 산업은 뉴욕주 전체에 걸쳐 수 천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며 많은 지역사회에서 관광의 주요 동인입니다. 이 회담에서 개최된 중요한 토의와 그로 인한 핵심 개혁은 기업가적 정부로서 주요 산업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돕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제휴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킵니다.”

뉴욕주에는 450여개의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과실주 양조장이 있는데 해마다 많은 새 업체들이 문을 엽니다. 포도주, 맥주, 주정, 과실주 생산업자들은 뉴욕주의 년 총 경제 영향에서 22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며 전적으로 수 만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포도 및 포도주 생산에서 전국 3위이며 두 번째로 많은 증류주 양조장들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상위 생산 20개 맥주 양조장 중 3개가 뉴욕주에 위치합니다.

호프 생산업체, 보리 재배자로부터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의 농업은 맥주, 포도주 및 주정을 바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음료 산업에 투자하고 지원 방법을 찾는 것은 포도주, 맥주, 주정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전주의 농민과 장비 메이커들에게도 이롭습니다.

Korean

비즈니스, 농업 및 커뮤니티 리더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경청한 후에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초기 발표로 주정부가 업계 마케팅을 개선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줄이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밝혔습니다.

관측 및 관광

이 회담에서 비즈니스 및 업계 리더들은 뉴욕주가 음료 생산업체를 겨냥한 관측 및 관광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식별하였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관광 증대 및 주에서 생산된 포도주, 맥주, 주정의 관측에 특별히 맞춘 진흥 캠페인에서 다른 주보다 뒤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지사는 다음과 같은 공격적 관측 및 마케팅 캠페인을 계획하였습니다:

- 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위해 주정부는 1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업계 매칭을 활용한 기금을 200만 달러까지 증대하여 총 마케팅 캠페인을 500만 달러로 늘릴 것입니다.
- 뉴욕주의 포도주, 맥주, 주정 생산업체들이 뉴욕시의 레스토랑 같은 주요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해 주지사는 주지사 비서 Larry Schwartz가 이끄는 실무 그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실무 그룹은 주 전체의 식당과 호텔들을 뉴욕주에서 생산된 포도주, 맥주, 주정 및 식품의 생산자들과 제휴시키는 레스토랑 주간 및 상품 전시회와 유사한 전문화된 연례 마케팅 행사를 조율할 것입니다.
- 주정부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맥주, 포도주, 주정, 과일주를 연례 뉴욕주 박람회에서도 관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주정부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알코올성 음료가 뉴욕경마협회 트랙에서 판매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할 것입니다.

단일 정부 연락처

맥주, 포도주, 주정 제조업체 및 도매업자들은 이 회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준법을 위해 상대해야 하는 다른 주 기관들의 많은 경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풀타임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이슈를 위해 무슨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지 모르므로 피할 수 있는 벌금을 불필요하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업계가 모든 지원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단일 연락처와 장소를 갖도록 Empire State Development 내에 원스톱 슝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주류청, 농업시장부, 세무재무부, 노동부, 에너지보존부, 보건부, 및 교통부를 포함하여 제조업체 및 면허 규제에 관련된 기관에서 지정된 요원들이 질의에 응답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피면허자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원스톱 슝과 협력할 것입니다.

규제 개혁

주정부가 맥주, 포도주, 주정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업계가 직면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개혁을 시작하였지만 회담 참석자들 사이의 토의에서는 중요 보호 보치를 유지하면서 업계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들이 규명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 개혁을 발표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즉각 실시될 것입니다:

- 동일 장소의 복수 제조 면허 금지를 폐지: 기존 규제에 의거, 복수 타입의 알코올성 음료 생산업체는 각 타입의 음료에 대한 별도 면허 및 별도 구내를 보유해야 했으며 그 예외는 포도주 양조장 및 농장 포도주 양조장이었고, 여러 음료 제조업체들이 설비를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위스키도 제조하기 원하는 작은 맥주 양조장에 부과될 완전 별도 설비를 포함한 엄청난 추가 부담을 인식한 주지사는 이 금지를 제거하고 동일 제조업체가 동일 장소에 복수의 면허를 보유하거나 여러 제조업체들이 동일 장소에 면허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SLA에 지시하였습니다.

- 시음회를 할 때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병 판매를 허용: 기존 법률에 의거 농장 증류주 양조업체, 농장 포도주 양조업체, 포도주 양조업체, 과실주 생산업체 및 농장 맥주 양조업체는 NYS 원료로 생산한 알코올 음료를 카운티 견본시 및 농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체들 중 일부는 주 견본시 및 특정 시음회에서도 병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거리 견본시 및 자선 행사 같이 생산업체가 샘플은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음료를 병으로 판매할 수는 없는 기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시정하고 제조업체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새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는 SLA 생산업체가 시음회 개최가 현재 허용된 행사에서 “병으로” 판매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 맥주 및 과실주 생산업체들이 특별 행사/거리 견본시에서 판매하기 위한 임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허용: 뉴욕주 생산업체들은 거리 견본시 같은 행사에서 맥주와 포도주의 “잔에 의한” 판매를 위한 하루 특별 행사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는 비면허 개인 또는 행사 주최 기관과 소매 면허 보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맥주 양조업체 같은 실제 생산자들은 법률이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금년에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소규모 포도주 제조업체가 특별 행사를 위한 허가를 득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기타 생산업자들은 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없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거리 견본시, 자선 행사 및 기타 인기 행사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포도주 제조업체들과 같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및 과실주 생산업체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SLA가 자격 가이드라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제조업체의 마케팅 허가 수수료 인하: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SLA는 제조업체의 마케팅 3년 면허 수수료를 년 \$750에서 \$125로 인하할 것입니다.

- 제조업체의 면허 신청 요건 완화: 현재 생산업체가 신청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은 비즈니스에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SLA는 상세 다이어그램, 복수의

은행 명세서 및 파일에 이미 있는 정보 같이 제조업체의 신청과 관련 없는 특정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것입니다.

- 증류주 양조장 및 맥주 양조장의 중복 면허 폐지: 현재, 농장 증류주 양조장 및 농장 맥주 양조장은 SLA 면허 이외에 농업시장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40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농장 포도주 양조장에는 이 면허 요건을 면제하였는데, 주지사는 오늘 모든 농장 맥주 양조장 및 농장 증류주 양조장도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SLA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주지사 비서 Larry Schwartz가 이끄는 실무 그룹이 형성될 것입니다.

무역 이슈

업계 대표들은 회담 동안에 캐나다 포도주 관세가 뉴욕주 생산 포도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지사는 해법을 찾도록 돕기 위해 주정부가 실무 그룹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음료 트레일

맥주 및 포도주 트레일 업데이트에 대한 연방 및 법정 제한뿐만 아니라 일부 도로 간판에 대한 엄격한 연방 규칙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주정부가 Cooperstown 음료 트레일과 유사한 새 트레일을 만들기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 무역 박람회

주지사는 뉴욕주 맥주, 포도주, 과일주 및 주정을 국제 무역 박람회에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주지사 비서 Larry Schwartz가 이끄는 실무 그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뉴욕주의 맥주 및 포도주 산업을 위해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지난 후에 개최된 것입니다. 7월에 주지사는 뉴욕주의 맥주 제조업체와 포도주 제조업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의 수요를 증대하고 업계 관련 경제 개발 및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 법률은 뉴욕주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업체를 위해 중요한 세금 혜택을 보존하고, 소량의 맥주(생산지와 관계 없이)를 생산하는 양조자들이 주류청에 납부하는 연례 주류 판매 면허 비용을 면제해주며, 농장 양조 면허를 창설하여 소규모 양조자들이 식당을 개업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